

'22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2. 10. 24 / IR그룹)

목 차

인사말 1

I. 경영실적 : 1. 연결 손익 종합 2

2. 사업군별 손익 요약 2

II. 사업군별 실적 : 트레이딩, 에너지, 투자기타 ... 3~6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의 3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금일 기업설명회는

제가 2022년 3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 현황을 설명 드린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I. 경영실적 - 연결손익 요약 및 사업군별 손익 상세 - 2~3 page

그럼 당사의 2022년 3분기 잠정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손익 요약입니다.

22년 3분기 매출액은 9조 41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8.3%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97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6%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은 철강수요 부진으로 철강원료 판매량이 저조하며 트레이딩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시황하락의 영향을 받은 투자법인의 수익이 줄어들며, 매출보다 큰폭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ROE는 감소한 손익실적으로 인해 매출액 순이익률이 0.91%p 하락하였고, 총자산회전율 역시 2.42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EBITDA는 2,97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30% 하락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28%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장은 연결손익 상세로 사업군별 손익 요약입니다.

매출액은 트레이딩 사업군이 전분기비 21%감소하였고, 에너지와 투자기타 사업군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트레이딩 사업군이 47%, 투자기타 사업군이 58% 감소하며 1,9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에서는 상승한 금리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이자비용이 382억원 증가하였고, 관계기업손익은 소폭 하락한 19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군별로 상세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II. 사업군별 실적 – 4 page

먼저, 트레이딩 사업군입니다

당사 영업본부와 무역법인의 트레이딩 손익은 연결조정 미포함 기준 매출액 10조 8,484억원, 영업이익 584억원입니다.

철강 트레이딩은 제품 판매는 견조하였으나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해 철강원료의 판매가 감소하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유로화 약세 영향이 계속되며 전분기 대비 47%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종통화 헷지를 통해 영업외손익으로 226억원이 보전되었습니다.

식량소재 트레이딩은 대두 공급의 감소와 사료용 곡물 수요의 감소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재고평가 손실로 분기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역법인 역시 메인 비즈니스인 철강 시황의 하락으로 이익이 감소하였고, 중국향 대두 판매도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19.6% 하락하였습니다.

철강제품은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1.8% 소폭 감소하였으며,

철강원료는 석탄 및 철광석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46% 하락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포스코산 철강제품은 전년대비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포항 냉천범람의 피해로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곡물 트레이딩은 곡물 시황이 약세였기 때문에 운전자본 소요가 많은

곡물의 거래를 축소하였으며, 대두의 경우 2분기말까지 브라질산의 공급을 마치고 4분기초 미국산 대두의 공급까지 수확기 차이로 인한 취급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사료용 옥수수 수요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잠시 언급한 포항 냉천 범람의 피해 현황은 특이사항에서와 같이

9월 이후 판매량이 제품, 원료 합쳐 160만톤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광양소 생산 전환 판매와 슬라브 수출 확대 등 판매 만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I. 사업군별 실적 – 5 page

다음은 에너지 사업군 실적입니다

에너지 사업은 지난 분기 대비 소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으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3,487억원, 영업이익은 9.8% 감소한 938억원입니다.
중유 및 LNG 거래의 증가,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와 판가 및 환율 상승으로
투자비 회수가 247억원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미얀마 가스전의 매출감소 요인과 함께
플랜트 장기채권의 집합평가 대손으로 전분기 대비 102억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판가는 지난 분기 대비 6.9%의 상승이 있었으며,
판매량은 497억입방피트로 9.2%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유가의 흐름이 여전히 약세로 예상되나, 회사 가스전의 판가는
4분기 1.7% 상승하며 내년 2분기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지속됩니다.

가스전 판매량은 현재 최대생산용량을 유지하며 일산 5.5억 입방피트 수준이며,
판매가는 23년 2분기 8불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2분기 집중되었던 투자비 회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타 에너지 추진사업으로 미국 쉘시에르사와 체결한 장기구매 계약을
그룹사향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마쳤으며,

인도네시아 번가의 탐사권 확보를 추진하며 탐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II. 사업군별 실적 – 6 page

이어서 국내외 투자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법인은 3분기 매출 6,885억, 영업이익 4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최대 실적을 보인 투자법인 실적은

철강재 시황하락, 인도네시아 팜유 시황 하락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였습니다.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은 전분기 대비 해외 고객사향 구동모터코아 판매량 감소와
STS 시황 하락을 보이며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 침수로 인해 9월 이후 STS는 7천톤의 판매량 감소,
3천톤의 후판임가공 감소, 코아사업실의 구동모터코아 소재인 전기강판 복구 비용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동모터코아는 유럽향 일부 모델의 수급 조정으로 인해 해외 판매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며, 분기 35만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PT.BIA 법인은 3분기 비수기 시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지난 분기 대비 판매량이 35% 감소하였으나 4분기 수요 및 시황 반등이 전망되며
생산량과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넥스에너지는 유가 상승과 호주 시장의 공급 부족 영향으로
지속적인 판가와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25년내 가스생산량 증산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3분기에는 가스처리시설
건설을 착수하였습니다.

II. 사업군별 실적 – 7 page

이상으로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